

사내아이, 하늘에서의 전쟁, 이기는 성도들

성경: 계 12:5, 7-11

I. “그 여자가 아들,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,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.” — 계 12:5.

- A. 여기에서 ‘낳았으며’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서와 같이 부활을 의미한다.
 - 1. 사내아이는 죽고 부활한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.
 - 2.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‘죽기까지’라는 말로 증명된다.
- B. 성경에서 여자는 비교적 약한 이를 상징하고, 남자는 비교적 강한 이를 상징한다 — 벰전 3:7.
 - 1.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 더 강한 부분을 상징한다.
 - 2. 사내아이가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언급된 대로 사내아이가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.
- C. 이끌려 올라가는 것은 휴거되는 것이다.
 - 1. 사내아이의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언급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의 휴거와는 다르다.
 - 2.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공중으로, 일곱째 나팔(계 11:15), 즉 마지막 나팔 때(고전 15:52, 살전 4:16)에 휴거된다.
 - 3.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, 삼 년 반(마흔두 달, 계 12:14, 13:5, 11:2)의 대환난 기간인 천이백육십 일 전에 휴거되는데, 이 대환난은 다섯째 나팔이 불리기 전(9:1)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부터 시작된다.

II. “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.” — 계 12:7상.

- A. 사내아이가 하늘로 휴거된 직후,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사탄과 전쟁을 시작한다.
 - 1.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강한 부분인 사내아이가 항상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싸우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2. 사내아이는 쉬지 않고 땅에서 사탄과 싸워 왔다.
 - 3. 하늘은 사내아이가 와서 전쟁을 수행하여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.
 - 4. 성경은 두 천사,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이름을 제시한다.
 - 5.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식을 가져다주는 보고자이고(단 8:16, 9:21-22, 눅 1:19, 26),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전사이다(단 10:13, 21, 11:1, 12:1, 유 9).
- B. “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”(계 12:7하). 이 천사들은 사탄을 추종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 분명하다(마 25:41).
- C.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다 — 요 12:31, 16:11.
 - 1. 그 뒤를 이어 그러한 심판을 수행하고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필요하다.

2.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사실상 사탄에게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.
3. 결국 그 전쟁을 통해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— 계 12:7-9.

Ⅲ. “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.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(마귀)를 이겼으며,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.” — 계 12:10-11.

A.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.

1.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,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— 요일 1:7.
2. 우리가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도 유죄판결 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, 이런 느낌은 모두 하나님의 빛 비춤이 아니라 사탄의 비난이다 — 요일 1:9.
3. 우리는 이유 없는 비난들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이유 있는 모든 비난도 거절해야 한다.
4.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지만, 보배로운 피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층 더 욕되게 하는 것이다 — 마 26:28, 비교 히 10:29.
5. 우리는 항상 피를 적용하며 마귀에게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보배로운 피 아래 있다고 말해야 한다 — 벰전 1:18-19, 행 20:28.

B. 그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.

1. ‘증언’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뜻하고, ‘증언하는 말’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다.
2.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주 선포하며, 마귀가 주님께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언해야 한다 — 요일 3:8, 히 2:14.
3. 사탄은 우리가 그와 시비를 따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선포할 때 두려워한다 — 비교 대하 20:20-22.
 - a.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사탄에게도 믿음으로 선언해야 하는 영적인 사실이다 — 빌 2:9-11, 고전 12:3하.
 - b.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,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며, 사탄은 그분의 발아래 짓밟혔다는 것을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— 창 3:15, 요 14:30하, 롬 16:20.

C.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.

1.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,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혼생명, 곧 사람의 자아와 결합시켰다. 따라서 사탄을 이기려면,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.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혼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한다 — 마 16:23-24, 눅 14:26, 9:23.
 - a.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고, 우리 혼의 능력 곧 우리의 타고난 역량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한다.
 - b. 타고난 역량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고, 십자가의 운행으로 한 번도 처리받은 적이 없는 역량이다.

- c. 교회의 실패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가져오는 것에 기인한다.
 - d.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타고난 힘과 역량을 처리함으로, 모세나 베드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감히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— 행 7:23-30, 눅 22:32-34, 벰전 5:5-6.
 - e.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아에 의해 살지 않겠다는 태도, 우리 자신의 역량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— 고전 2:2-4, 빌 3:3, 비교 사 11:2하.
2. 우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포도주가 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, 전제물 곧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— 빌 2:17, 딤후 4:6, 샅 9:13.
- a.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참포도주로 부어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— 출 29:40-41.
 - b.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부어진 전제물이 되었다 — 빌 2:17, 딤후 4:6.
 - c. 전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 아니라,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부어질 때까지,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— 마 9:17, 빌 2:17, 딤후 4:6.